

금호타이어 정상 조업 합의

강운태 시장 중재...노사 쟁의 행위·직장폐쇄 철회

금호타이어 노사가 1일 파업과 직장폐쇄를 풀고 정상 조업하기로 합의했다. 파업과 직장폐쇄를 맞선 지 8일 만이다. <관련기사 2면>

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는 전날 밤늦게까지 협의를 벌인 끝에 파업과 직장폐쇄를 끝내고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정상 조업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노사 합의 내용은 ▲노조는 쟁의행위를 확정적으로 철회하고, 사측은 직장폐쇄 해제와 확인서 요구 철회 ▲노조는 워크아웃 상황을 인정하고 워크아웃 조기 종업을 위해 노력 ▲노사 간 대화 시작 등 3가지다. 합의서에는 전년대 생산본부장과 김봉갑 노조위원장이 서명했다.

이로써 지난달 25일 노조의 파업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한 금호타이어는 사태 8일 만에 노사 합의로 정상화됐다.

노사는 "일단 파업과 직장폐쇄를 풀고 정상적인 공장 가동을 위해 조업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노사가 지속적으로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노사 합의에는 강운태 광주시장이 중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금호타이어를 방문해 김중호 사장과 김봉갑 노조위원장 등 노사 대표를 각각 만나 조업 정상화 합의를 격려했다. 노사 대표들도 "교착상태에 빠진 노사관계에 대화 물꼬를 광주시장이 터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이번 합의는 공장의 정상 가동과 대화의지에 합의한 것이지, 압단협 재교섭 등 쟁점 사안에 대해 합의한 것은 아니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동안 노조는 ▲퇴직금 보전방안 ▲소음성 난청 판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 ▲식사교대 수당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호봉 재조정 ▲타임오프논의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재교섭 등을 요구했다.

이 중 핵심은 지난해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으로 지나치게 임금이 삭감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며 임단협 재교섭을 요구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사측은 정리하고 대신 임금을 삭감했고 정년퇴직분 만큼만 도급화(아웃소싱)한 것으로 이를 무효화하려는 노조의 재교섭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사 대화는 하지만 임단협 재교섭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이번 파업 사태로 인한 매출 손실 등 직접 피해만 8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사가 1일 파업과 직장폐쇄를 풀고 공장가동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사태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선 강운태 광주시장이 이날 오전 금호타이어를 방문, 김중호 사장(위)과 김봉갑 노조 위원장(아래)을 각각 만나 '노사관계 안정'을 당부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과학벨트 상반기 중 발표할 것”

이대통령 “동남권 신공항 공약 못지켜 죄송”

이명박 대통령은 1일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 “상반기 중으로는 국민에게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후보 때 국민에게 공약한 것을 지키는 것이 도리’라며 “그러나 때로는 이를 지키는 것이 국익에 반하면 계획을 변경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영남지역 주민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사실상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신공항 백지화에 유감을 표하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지역구인 고향에 내려가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이해한다”며 “그러나 내 입장에서 보

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해 “후보 때 국민에게 공약한 것을 지키는 것이 도리”라며 “그러나 때로는 이를 지키는 것이 국익에 반하면 계획을 변경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영남지역 주민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며 사실상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신공항 백지화에 유감을 표하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지역구인 고향에 내려가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이해한다”며 “그러나 내 입장에서 보

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도 아마 이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천지개벽이 두 번 돼도 이것은 우리 땅”이라며 “지도 대통령으로서 말을 아끼고 있을 뿐이지, 심정은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문제에 있어서는 “내년이 임기 말이니까 올해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는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는다. 정치적 이유로 서둘러야겠다는 차원은 아니다”며 “북한은 저질러놓은 일에 대해 사과표시를 해야 한다.天安함과 연평도에 대해 진지한 마음으로, 진정된 자세로 대담을 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회담에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코스피 2121.01...사상최고 경신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며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다.

1일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전기전자와 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사자'에 나선 데 힘입어 지난 1월 19일 종가 기준 사상 최고점인 2,115.69선을 가뭄비 넘어섰다.

전날보다 14.31포인트(0.68%) 오른 2,121.0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역시 1189조4732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종전 기록은 1월 19일 작성한 1182조4754억원이었다. 외국인은 현물시장에서 오히려 최

대 규모인 7318억원의 순매수했다.

원·달러 환율은 4거래일째 하락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1일 미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5.60원 내린 1,091.10원에 거래를 마쳤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남영건설 법정관리 신청

전남지역 중견건설사인 남영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1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무안에 본사를 둔 남영건설이 이날 오후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냈다.

남영건설은 신청서에서 “자체 추정 한 계속기입가치는 880억원인데 비해 청산가치는 405억원 불과하다”

며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채무변제기간이 늦춰지면 BTL 및 공동도급공사 시공 등을 통해 채무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밝혔다.

남영건설은 토목·건축·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공공·민간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교·병영시설 BTL 사업에 주로 참여했다. 최근 건설경기 부진과 BTL 및 턴키사업 경

쟁 심화, 광양 신급산단 PF 자금조달 지연 등으로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 규모는 545억원이다.

남영건설은 2009년 말 기준 시공 능력평가액 1369억원으로 전국 146위, 전남 11위의 중견 건설업체다. 지난해 기성액(매출)은 1229억원이었다.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1공구, 영산강대교, 광주도시철도 1호선 정거장 시설, 해방대 인천·김포 병영시설 BTL 사업 등에 참여했다. 법원은 조만간 대표이사 심문과 현

장 검증 등을 거친 뒤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물가 3개월 연속 4%대 고공행진

3월 소비자물가가 3개월 연속 4%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

리비아와 바레인 사태 등 중동의 연이은 정세불안 소식에 따른 국제유가가 급등으로 석유류 가격은 15.3%나 상승했으며 전세와 월세 가격도 각각 3.7%, 2.1% 올라 집세는 2003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7%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0.5%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 물가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10월(4.8%) 이래 29개월 만에 최고치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4%, 전월 대비로는 0.5%

상승했고, 전남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1%, 전월에 비해 0.3% 올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 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www.musicalyounga.com

CAST 송창의, 윤도현, 리 사, 임병근, 허 규

뮤지컬 광화문연가

2011년 4월 22일(금)~24일(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 최 | 광주일보 KBC
 | 주 관 | KBC미디어컴 · 영무엔터테인먼트

| 공연시간 | 22(금) 오후 8시 · 23(토) 오후 3시 · 7시 30분 · 24(일) 오후 3시
 | 티켓가격 | VIP석 110,000원 · R석 99,000원 · S석 88,000원 · A석 66,000원 · B석 55,000원
 | 예매처 | 인터파크 · 쇼티켓 | 공연문의 | 062-220-0541

DJm 뮤지컬 광화문연가